

금리 하락에 '예금이탈' 가속 신규 가계대출은 1년새 2배 ↑

금리, 건축 이전수준 근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年 3% 미만 예금상품 속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고, '예금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금상품 39개 중 기준금리(연 3.50%)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상품별 12개월 만기 최고 우대금리는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3.8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3.53% ▲KB국민은행 KB스타(star)정기예금 3.51%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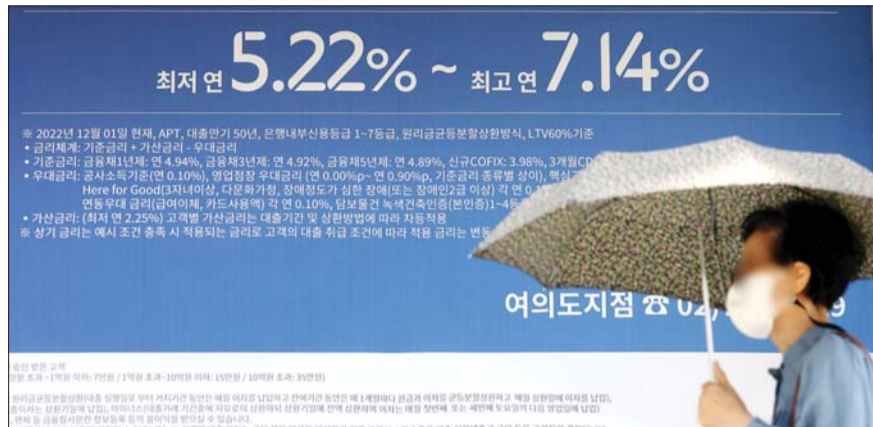
◆ 예금상품 매력 ↓

특히 이자가 연 3.0%에도 못미치는 예금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중 6개가 연 2.0% 금리에 불과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1년 만기 정기예금 대표상품 가운데 금리가 3.50% 이상인 상품은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연 3.53%) 뿐이다.

이처럼 금리 매력이 사라지면서 은행의 4월 말 수신 잔액(2204조9000억원)은 3월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14조8000억원, 정기예금도 6조4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예금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최근 통화긴축 기조가 주춤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춰 수익방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최근 대출금리가 2021년 8월



은행 대출금리가 1년 6개월 전 수준인 3%대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은행 외벽에 붙여있는 대출금리 안내문. /뉴스시

<국내은행 기준금리 초과 예금상품>

은행	상품명	금리
Sh수협	헤이 정기예금	3.75%
SC제일	e-그린세이브예금	3.6%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3.6%
DGB대구	IM스마트예금	3.55%
우리은행	원플러스예금	3.53

*12개월 만기 기준 /각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은 다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대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7~6.79%를 나타내며 금리하단이 3%대로 낮아졌다. 올 초만 해도 5~8%대를 나타냈던 시중은행의 변동금리가 1달 만에 2%포인트(p) 가까이 내려간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건축 이전 수준에 근접하자, 신규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5대 시중은행의 월별 신규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 3월에만 모두 18조 4028억원의 새로운 가계대출이 이뤄졌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9조9172억원)과 비교하면 86%나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3월과 4월 각 93%(8조6878억원→16조7628억원), 76%(7조8536억원→13조7888억원) 뛰었다.

3월과 4월의 신규 신용대출도 각각 33%(1조2294억원→1조6400억원), 30%(1조2178억원→1조583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2조3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 2021년 11월(2.9조원) 이후 가장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은행 자체 상품만 따지면 지난 4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예금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주문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조달비용을 낮추고 수익성 지표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금리가 하반기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권 "세번째 금리동결 유력"

한은 금통위 내주 기준금리 결정
전문가들 "고물가 여전... 인하 일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소비자물가가 둔화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에도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근원물가와 치솟는 환율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올해 내 기준금리 인하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 근원물가, 물가안정 걸림돌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4월 기준 110.80(2020년=100)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올해 1월 5.2%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각각 4.8%, 4.2%를 찍은 뒤 3%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근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4%로 올해 1월 4.1%에서 2·3·4월 4.0%를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기

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식료품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금융시장, 금리동결 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팎에선 세번째 금리동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에도 외국인이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의 경우 다른 정책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달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인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는 1.75%포인트(p) 벌어졌다. 중국 리오프닝 등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호 BNP파리바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

이창양 "2027년 세계 점유율 50%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면 '산업부, 디스플레이...'서 계속

IT용 8세대 등 대량 양산기술을 고도화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신축성, 발광효율 등 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더해, 더 밝고, 수명이 길고, 더 큰 화면 구현이 가능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 올 하반기엔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생산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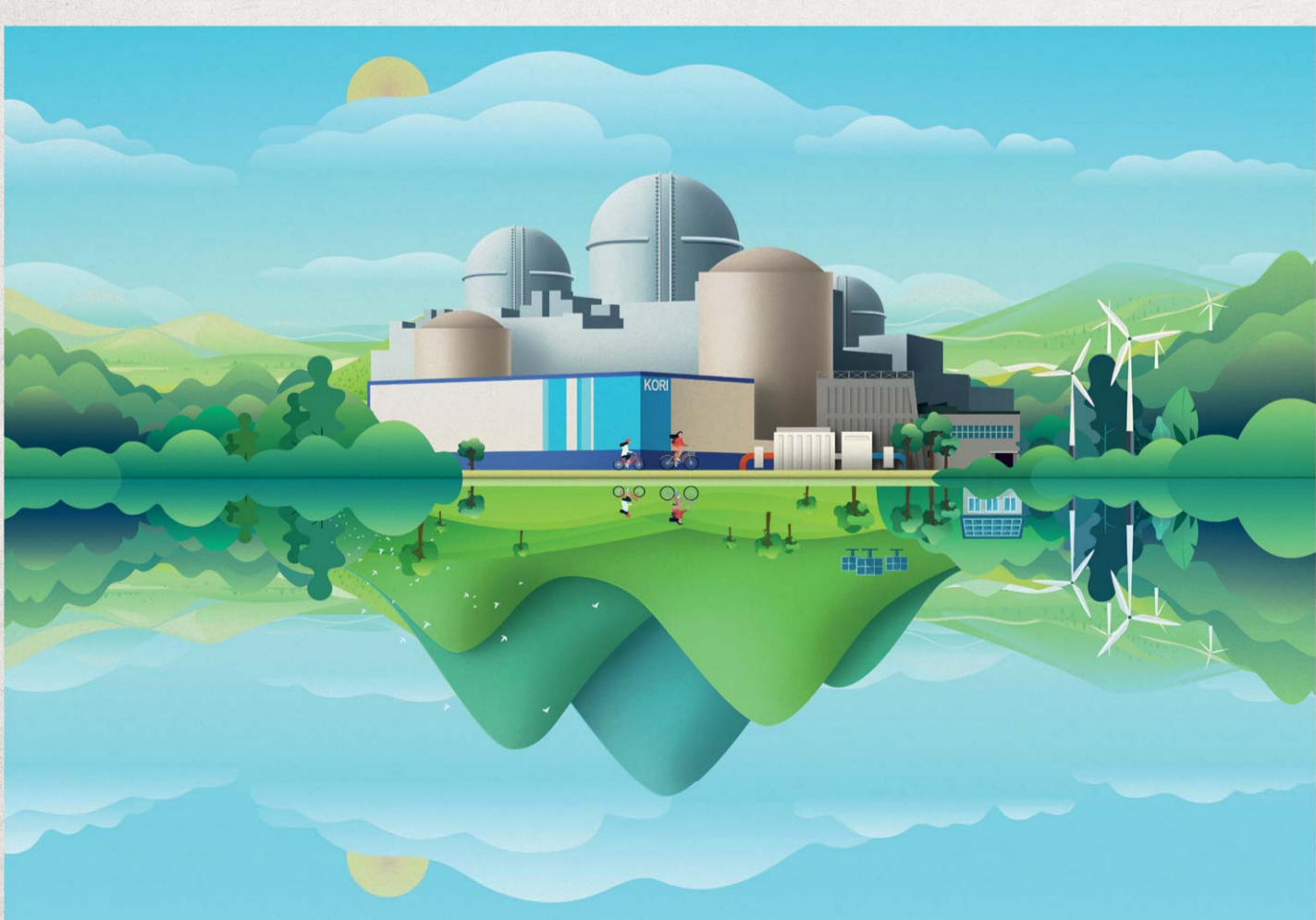
이밖에 5000억원 이상 규모 정부 연구개발을 추진,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로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과 고투명 전극소재 등 미래 성장성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총 80개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창양 장관은 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이라며 "전략에서 제시한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 등 목표를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처음부터 끝까지 시~바른 발전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고
안전한 원전 해체를 통해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모든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